

막장 난동 화순군의장 구속영장 신청 의원 1명은 입건

화순경찰서는 28일 군청에서 간부 직원에게 욕설하고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화순군의회 조우송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행주 총무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 의장 등은 지난 20일 오후 5시40분께 화순군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안도 총무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10여 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안과장은 조 의장이 던진 의자를 피하려다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나친 행위로 판단,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엄중처벌 한다는 차원에서 조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인 안과장과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해당 의원들도 난동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 의장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근무중인 군청 사무실에서 2인 이상이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간부 공무원에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



28일 광주 동구 내남동 남계마을 인근 광주~화순간 지방도 확장공사 현장의 절개지 일부가 최근 내린 비로 붕괴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집중호우가 계속돼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광주에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위험지역이 상당수에 이르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대강사업에 쏠려 防災예산 국고지원 쥐꼬리

광주 재해위험지역 손 못썰었다

광주시 동구 지원동 소재천 인근에 사는 김모(64)씨는 비 소식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2년 전 집중호우로 마을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재해위험지구로 포함됐지만 지금까지도 하천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작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못하면서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재

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또다시 재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재해위험지구 6곳을 정비하기 위해 올해 국비 32억원을 요청했으나 이 중 고작 12%인 4억원만이 지원돼 뒤늦게 시비와 구비 등 지방비로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애초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정비할 생각이었으나 예산이 없어 지금까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은 소태·남계지구의 하천 및 호안정비를 위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각각 국비 6억원과 12억원이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구청과 광산구청 등도 장등지구 제방 보강, 연산지구 하천정비 등을

하지 못한채 잠마찰을 보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소방방재청 예산을 대폭 줄여 지역 재해예방에 비상이 걸렸다”며 “특히 올해는 국비 지원시기마저 늦어 구비와 시비 등 지방비를 제 때 마련하지 못하는 등 중앙정부의 재해예방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사망·실종 70명 육박 中部 폭우 인명·재산피해 확산

서울과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 사흘째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범람 등이 잇따라 발생, 사망·실종자가 70명에 육박하는 등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경기와 강원북부 지역 등에 내린 폭우

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28일 오후 4시 현재 전국적으로 5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인명 피해가 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방배동, 남태령 등에서 27일 잇따라 발생한 산

사태로 인근 아파트와 주택, 도로 등지에서 1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20명이 다쳤다.

강원 춘천 신북에서 산사태로 펜션이 붕괴되면서 투숙 중이던 대학생 등 1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등 24명이 부상했다. 경기도 파주

에서도 산사태가 공장을 덮치면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밖에 경기도 광주와 포천, 과천, 동두천, 용인, 연천, 여주, 양평 일대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왔다.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 등으로 서울지역 1272가구 1883명, 경기 3482가구 7418명 등 모두 4809가구 94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알림

호남 농수특산품과 함께 하는

제1회 아줌마 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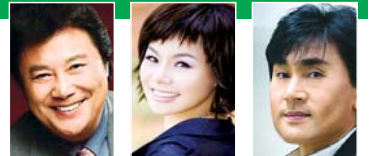


광주일보사가 '제2의 청춘, 아줌마들의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1회 아줌마 축전'을 개최합니다. 가정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소비주체인 주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번 축전에는 인기 가수 공연 및 각종 축제 이벤트가 펼쳐지며 광주·전남북 모든 시·군·구의 최우수 농수특산물 판매부스가 설치됩니다.

9. 2(금)~4(일) 무등경기장 축구장

● 첫째날 9월2일(금)

식전공연/농산물게장식/아줌마축전 개막식/축하공연(가야금과 비보이의 만남)/아줌마팔씨름대회/밸리댄스경연(예선)/아줌마명상공연/유명가수 축하콘서트



남진 현숙 조항조

● 둘째날 9월3일(토)

시·군예술탄곡공연/호남예술탄곡공연/아줌마골든벨/팔도사투리대회(속풀이발연대)/다문화가족 장기자랑대회(예선)/밸리댄스경연(결선)/아줌마시낭송대회/가을속이야기 콘서트(7080가수출연)



해바라기 유리상자 김홍철

● 셋째날 9월4일(일)

시·군예술탄곡공연/마당놀이(사람사는세상)/다문화가족 장기자랑대회(결선)/품바경연대회(결선)/아줌마가요제(결선)



김홍철

- * 9월1일(목)전야제/품바경연대회(예선)/아줌마가요제(예선)
- * 이벤트 참가자 전원 상품권 제공/입장객 매일 1천명 경품 제공
- * 참가문의 : 광주일보 홈페이지, www.azim.kr
- * 홍보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선착순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

- 주최: 광주일보사 ● 주관: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 후원: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오렌지 2호 지연운항 관련 사과문

2011년 7월 25일 22:30 장흥노력항 입항후 일일 기관 정기점검시 이상이 발생되어, 긴급수리후 한국선급(KR)측에 안전운항 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운항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정상수리시까지 부득이하게 운항속도가 감소하여 고지된 운행시간 보다 약 45분 지연된 편도 3시간5분대의 시간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여름성수기 및 추석연휴 특송기간을 감안하여 KR에서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관계기관에 운항시간 변경승인을 득한 후 오렌지2호의 운항시간을 편도 3시간 5분대로 하여 8월 21일까지 임시운항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월 22일이후 운항일정은 8월 4일전까지 최종 변경일정안을 고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관결함으로 인해 오렌지 2호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지연운항으로 인한 고객님들의 피해와 불편을 감안하여 연안여객운송 약관상 환불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7월 26일 오렌지2호 출항분부터 여객운임의 20%에 대한 금액을 최초 승선지에서 승선수속시 개별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6일 ~ 28일 이미 이용하신 고객들께는 순차적으로 유선상으로 통보 및 확인 후 환불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객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고객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8월 22일 ~ 11월 사이 기간은 예약 / 예매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오렌지2호의 운항시간을 재신고하고 허가를 받은후 8월 4일 재오픈을할 예정이라 홈페이지상에서 8월 3일까지는 예약/예매가 안되오며 기존 예약자는 예약된 운항일정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사에서 운용하는 오렌지 1호는 기존 1시간 50분대의 운항시간을 정상운항하고 있으며, 오렌지2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고객과의 운송책임과 신뢰에 책임을 다하고자 여객운임에 대해 20%환불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으며 신속한 정상수리를 통해 제주까지 가는 가장빠르고 안전한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